취약 계층에 방역 마스크 110만장 전달

자체 예산 4억원 투입…3개 보훈단체와 보훈병원 등 지원

상이군경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회장 김덕남)는 지난달 16일 오전 중앙보훈회관 1층 강당에서 코로나19에 취약한 상이군경회 연로 회원, 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등 3개 단체와 6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kf94 방역마스크 110만장을 전달했다.

상이군경회는 국가수호를 위해 앞장섰던 단체라는 자부심으로 최근의 국가적 재난사태를 맞아 사회적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이번에 4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마스크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덕남 회장은 이날 전달식에서 "감염 확산으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됐고 필수품이 됐지만, 우리 일상 속에서 이 필수품마저 넉넉히 갖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면서 "그분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것이 국가적 재난사태에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우리 상이군경회 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지원키로 했다"면서 이번 지원의 취지를 밝혔다.



상이군경회 김덕남 회장(가운데)이 국가유공자 단체에 방역마스크를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이전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회장 이종열)가 서울시 강동구 천중로 206, 6층(강동구 길동 350-1) 호국영웅보훈회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사진〉

호국영웅보훈회관은 올해 입주할 예정인 6·25참전유공자회와 함께 보훈단체의 업무를 위한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특수임무유공자회는 2개 층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한다. 지난달 28일 특수임무유공자회의는 이전을 완료했으며, 대표연락처(02-737-8240)는 이전과 동일하다.

새로 입주하는 회관은 지하철 5호선 길동역 2번 출구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다.

5·18민주화운동 3개 단체 공법단체 설립

5일 단체설립법 개정안 공포

"설립 과정 및 정착 지원 최선"

5·18민주화운동 41년 만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공법단체가 설립된다. 이로써 국가보훈처 소관 공법단체는 기존 13개 단체를 포함해 16개로 늘어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29일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며, 올해로 41주년이 된 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단체의 공법단체 설립 근거 외에도 각 단체의 수익사업 관련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법단체 신설을 위해 각 단체는 법률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설립준비위원회는 정관 제정과 회장 등 임원을 선출한 후 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법단체 설립과 동시에 그간 사단법인으로 활동해왔던 부상자회, 유족회, 구속부상자회는 해산된다.

그간 사단법인으로 활동해왔던 3개 단체는 각각 공법단체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등 본격 단체 설립 준비에 들어갔다. 이들 단체는 5·18예우법 체계에 따라 공법단체의 자격을 갖춘 회원이 명확해지고 그 숫자도 조정됨에 따라 회원 가입 및 활동안내 등을 통해 향후 활동을 위한 역량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공법단체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 연락처는 부상자회(062-383-1518), 유족회(062-383-5180), 공로자회(전 구속부상자회 062-383-5181).

국가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41년 만에 지역 사회와 시민 단체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관련 3개 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매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단체 설립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초기에 단체 활동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謹賀新年 국가유공자 단체장 신년사

'따이한' 정신으로 영예와 권리 찾기 노력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장 이 화 종



여러분! 새해를 맞아 반갑습니다. 호국보훈회관에 새로 둥지를 튼 공법단체 월남전참전자회 중앙회는 56년 동안 찾지 못했던 우리들의 영예와 권리 되찾기에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6월 2일 임시총회에서 회장으로 당선되고, 6개월간 본회의 정상화를 위해 불철주야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쌍방향 의사소통의 기회가 보장되고, '건강하고 정의로운 전우회', '화합으로 발전하는 전우회'를 만들고자 '내부조직 개편' 및 '인사 혁신'을 단행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을 추진할 수 있는 체제도 구축하였습니다.

새해 최우선 과제는 ▲전투근무수당 특별보상 성사 ▲'양민학살' 음해 대응 결실 ▲전국 시·도지부 워크숍 순회를 통한 중장기사업계획 수립 등입니다.

이러한 현안 중 전투근무수당의 경우 5개월 전부터 전국 25개 관련 추진위원 단체를 취합, 고엽제전우회와 함께 힘을 합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젠 중앙회에서 같은 목소리, 한 목소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회는 또 전국적으로 환경봉사에 앞장서면서 국가유공자 환경운동본부를 적극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참전명예수당 인상, 유가족 승계, 특별법 제정, 해외파병의 날 정부 기념행사 승격, 의료복지지원 수준 제고 등 회원의 복지와 권리·명예 찾기를 최우선 목표로 일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단체의 현실을 빠르게 정상화시키기 위해 '따이한' 정신을 발휘해 이를 헤쳐 나가겠습니다. 모든 일에 제가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